

人物 圖像 版畫 收錄 朝鮮本에 대한 一考察

A Study on the Books Containing Portrait Engraving Printed
in the Joseon Period

최 경 훈 (Choi, Kyung Hun)*

◁ 목 차 ▷

- | | |
|-------------------|---------|
| 1. 서 언 | 3.1 한국인 |
| 2. 종합 도상 수록 문헌 | 3.2 중국인 |
| 2.1 歷代君臣圖像(中宗 命編) | 4. 결 언 |
| 2.2 君臣圖像 | <참고문헌> |
| 3. 삽화 도상 수록 인물 | |

< 초 록 >

조선시대 간본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판화의 수록이 적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인물 판화가 수록된 경우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물 판화가 수록된 서적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그 특징과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물 도상만이 수록되는 종합 도상집은 『역대군신도상(1526)』과 『군신도상[17c]』이 있다. 전자는 중국 인물 108인(임금 40인, 신하 68인)이 수록된 목판본(음각)으로 중종의 명으로 이행 등이 약전·찬문을 짓고 도화서 화공이 그림을 그려 편찬되었다. 현재 국내외에 7종이 전하며, 일본에도 전래되어 17세기에 목활자와 목판본 간행으로 이어졌다. 후자는 목록과 도상만으로 구성된 목판본(음·양각)으로 君臣의 구분 없이 연대순으로 盤古부터 許謙까지 194인을 수록한 책이며, 이번 연구를 통하여 처음 소개되는 유일본이다. 둘째, 삽화로 수록된 우리나라 인물 도상은 문집이나 실기에 주로 수록되어 있다. 이들 모두는 당대 공경과 귀감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로, 조선 전기에는 수록되지 않다가 1573년 길재가 『야은선생행록』에 수록되는 것을 시작으로 문집의 중간본에서 추가되는 현상을 보였다. 셋째, 인물 도상이 수록되는 것은 圖像을 보면서 善과 不善을 알고 行적을 본받고 경계하기 위한 鑑戒가 주된 목적이었으며, 한편으로 문집에 수록되는 것은 지역과 가문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要語: 『군신도상』, 인물도상, 판화, 중종, 이행, 『야은선생행록』

* 계명대학교 고문헌실 사서(lilimo95@daum.net)

접수일: 2015년 9월 3일 최초심사일: 2015년 9월 7일 심사완료일: 2015년 9월 20일

<ABSTRACT>

One of the character of the books published in Joseon period is small in number containing engraving. Especially portrait engraving is much less. Thu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 of the books containing portrait engraving, and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books only containing portrait engraving are *YeokDae GunSinDoSang* and *GunSinDoSang*. The former containing 108 kings and subjects was compiled by Yi-Heng and the painters of painting bureau on the order of the king Jungjong, and published with wooden plate in 1526. This book was introduced to Japan and published several times. The latter containing 194 kings and subjects is anonymous, and published with wooden plate in 17th century. It i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this study. Second, the books containing portrait engraving with illustrations was anthology or biography. All the person illustrated those books was model of reverence in those days and broadly the illustrations were added to the second edition of anthology from the 16th century. The first anthology containing portrait engraving was *YaEunSunSengHengRok* published in 1573. Third, the purpose of containing portrait engraving in the books was to emulate those great person by distinguishing good and evil. Meanwhile, It could be reflection of consciousness of their region or family.

Key words: *GunSinDoSang*, portrait engraving, engraving, Yi-Heng,
YaEunSunSengHengRok

1. 서 언

책은 편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저술한 것으로 본문은 편찬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술된다. 현대의 출판은 적은 비용으로 자유로운 출판이 가능하지만, 조선시대로 대표되는 과거의 출판은 저술에 대한 출판 공론과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출판 비용¹⁾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출판시스템으로 인하여 당시 출판물은 지금보다 그 시대의 가치와 이념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서적을 조사해보면 판화가 수록된 서적의 양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출판에 대한 통제와 검열이 강했던 조선시대 서적에 판화가 적다는 것은 ‘판화와 조선시대 출판문화의 관계’라는 물음을 던지기에 충분하다.

그림이 판각된 서적은 종교적 성격을 가지는 서적, 삼강오륜의 행실도, 성리학 이론을 설명한 도설, 족보·실기의 산도·사당도, 의학·군사학·수학·천문학 등 과학기술서의 도해, 읍지의 지도 등이다. 대부분 삼포 형식의 판화 정도가 수록되었는데, 이 가운데 인물 도상이 포함된 서적은 더욱 찾기 어렵다. 아마도 개별적으로 그려지는 초상화 등은 출판물이 아니므로 누구나 인정하는 공론과 명분을 얻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출판물에 판각되는 것은 조선 사회의 출판시스템에서는 공론과 명분이 더욱 요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리학을 이념으로 하는 조선에서는 그림(판화)이 회화 감상 기능보다 도덕 기능이 강조되어 그림이 鑑戒를 수단으로 하는 통치 목적으로 활용되었고,²⁾ 인물 도상이 서적에 수록·출판되는 것은 그 인물을 ‘보고 배우며 존송해야 할 대상’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인물 도상이 서적에 수록되어 출판되는 것은 문묘 배향 이상의 상징적 영향력을 가졌을 것으로 볼 수 있다.

1) 1889년에 작업을 시작하여 1891년에 완성된 許傳의 <性齋先生文集>은 632장의 판목이 들어갔는데, 총 8,500여 兩이 사용되었다. 당시 소 한 마리 가격이 51兩으로 모두 소 150마리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소 한 마리 가격을 500만원이라고 하면 목판 1장을 새기는데 약 135만원, 전체로는 약 8억 5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유교책판 나무에 繡를 놓다』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3), 134).

2) 문미진, “朝鮮에서 간행된 中國의 君臣圖像 - 朝鮮 中宗 命編 『歷代君臣圖像』-”, 『中學研究』 60(2014), 103.

그럼에도 초상화에 대해서는 미술사 분야의 연구가 있으나 서적의 인물 도상에 대한 연구는 『역대군신도상』에 대한 연구 정도이다.³⁾ 개인의 문집·실기 등에 삽도로 들어가는 인물 도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종합 도상 문헌과 삽화 수록 문헌으로 나누어 인물 도상이 수록된 서적을 조사·소개하고, 수록 인물과 수록 과정을 중심으로 그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시대 서적에 수록되는 인물 도상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판단된다.

2. 종합 도상 수록 문헌

2.1 歷代君臣圖像(中宗 命編)

『역대군신도상』은 홍문관 대제학 李荇 등이 중종의 명을 받아 伏羲부터 元의 許衡(1209-1281)까지 중국 역대 군신 108명의 도상에 약전과 찬문을 새롭게 추가하여 1525년(중종 20)에 재편한 것이다.

이 책의 편찬은 중종의 하명으로 시작되었다. 1525년 8월에 중종은 공자의 화상 1폭과 군신도상 한 짝을 내리면서 홍문관 관원에게 『삼강행실도』와 같이 贊을 짓도록 하고, 이행에게 서문을 짓도록 하였다.⁴⁾ 이러한 명에 의하여 이행은 동년 윤12월에 서문을 완성하였다. 그 과정에 중종은 贊을 중히 여겨 이행에게 특별히 4-5인을 선발하여 짓도록 하면서,⁵⁾ 군신들의 도상에 사적을 짓고 대제학과 찬술한 관원의 이름도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이 알게 하도록 명하였다.⁶⁾ 중종은 이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 贊의 지연에 대하여 홍문관에 재촉하는 한편,⁷⁾

3) 문미진, “古今人物圖像의 발전 과정과 懶牛의 『歷代君臣圖像』 연구,” 『中國人文科學』 54(2013), 369-391. ; 문미진(2014), 103-127.

4) 『中宗實錄』 권55, 중종 20년(1525) 8월 27일(甲寅).

5) 『中宗實錄』 권55, 중종 20년(1525) 8월 28일(乙卯).

6) 『中宗實錄』 권55, 중종 20년(1525) 9월 2일(戊午).

7) 『中宗實錄』 권55, 중종 20년(1525) 11월 29일(甲申).

자신도 여러 책을 열람하여 內藏한 책자에 삼대 이전의 군신이 빠져 있는 점 지적, 다른 책에 수록된 小序의 첨입, 화공에게 도상을 그려 목판에 새기도록 하는 출판 방법, 『삼강행실도』와 같이 序와 贊을 한쪽에 새기도록 하는 편집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⁸⁾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이행이 윤12월에 편집을 완료하면서 서문을 지었으나 종종외 추가 하명으로 재차 편집이 이루어져 간행은 내사가 이루어지는 1526년 5월에 가서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종종이 이 책을 편찬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 편찬 주관자였던 이행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무릇 사람의 성품은 남의 선한 행적을 들으면 비록 천백 년 전의 일일지라도 누구나 부러워하며 흉기하지 않는 이가 없고, 선하지 못한 행적을 들으면 비록 천백 년 뒤일지라도 침 뱉고 욕하며 멸시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굳이 내 자신에게서 직접 본 뒤에야 같아지길 생각하고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圖를 인하여 像을 보고 像을 인하여 마음을 찾는다면, 본받고 경계할 만한 것들이 책을 펴면 눈에 선명하여 마치 직접 그 사람을 만나 본 것과 같고 그 사람과 동행한 것과 같으니, 같아지길 생각하고, 자신을 반성하여 따르고 고치는 것이 어찌 더욱 깊고 절실하며 매우 분명하지 않겠는가? 우리 성상의 慎獨과 日新의 공부가 여기에 있도다.⁹⁾

이행은 서문에서 『논어』의 구절을 인용한 후, ‘사람은 누구나 善과 不善을 가지고 있어 선은 취하고 불선은 반성해야 하는데, 도상으로 마음을 찾는다면 본받고 경계할 것을 만나 동행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임금의 慎獨과 日新의 공부를 위한 중요한 책으로 인식하였다.

수록된 인물을 보면서 선과 불선을 알고 행적을 본받고 경계하기 위하여 편찬되었던 것이며, 김춘택이 『군신도상』을 개장하면서 지은 글에 從祖父 金萬重이

8) 『中宗實錄』 권55, 중종 20년(1525) 윤12월 27일(辛巳).

9) <歷代君臣圖像序>. “凡人之品 自非大聖 不能無少疵 自非至愚 亦或有一善 於一人之身 取其善而去其疵 則不必三人行而後爲可師也 凡人之性 聞人之善 雖在千百載之上 莫不歆艶而興起 聞其不善 雖於千百載之後 亦莫不唾罵而賤惡 不必於吾身親見之而後思齊而自省也 然若因圖以觀像 因像而求心 則可法可戒者 開卷瞭然而如親見之也 如與之同行也 其所以思齊自省而從之改之者 豈不尤爲深切著明也哉 我聖上慎獨日新之功.”

『군신도상』을 자체 교육에 활용한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내가 어렸을 때 늘 서포 선생의 곁에서 이 책을 보았는데, …(中略)… 孔孟에 이르러 성현이 거기에 있게 되면 양손으로 들어 올리고는 우리들에게 절을 하도록 하였는데, 절을 마치고 보면 축천무후를 들고 있었다. 선생이 크게 웃으며 “사람이고서 어떻게 축천무후에게 절을 할 수 있느냐?”며 조롱하듯 꾸짖고는 부끄럽고 분하여 울고 난 연후에 그쳤다. 우리는 무후의 뱀을 알고서 다투어 그 상을 지우고 더럽혔다.¹⁰⁾

위의 사례처럼 도상은 선을 따르고 불선을 경계·반성하는 책으로 활용되었는데, 이 경우不善한 인물에 대하여 경계하고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는 것이 그 도상을 더럽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흥미롭다. 실제 계명대 동산도서관과 성기회본[강릉선교장]의 『역대군신도상』에도 축천무후의 도상은 훼손되어 있다.

현재 이 책은 얼마나 전하고 있을까? 문미진은 국내외에 소장된 6종의 『역대군신도상』을 조사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¹⁾

- 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黃憲本): 黃憲 內賜本
2권 2책. 봉좌문고본(국중 영인자료 조사). 권두에 1526년 5월에 諫院正言 黃憲에게 내린다는 內賜記¹²⁾와 宣賜之記라는 內賜印이 있음. 제1책에 伏羲氏부터 閔王까지 40명의 임금, 제2책에 倉頡부터 杜甫까지 39명의 신하가 수록.¹³⁾ 권두에 목차 필사 첨부. <歷代君臣圖像序(李荇, 1525)> · <題聖賢像(張洪, 1438)> · <續刊聖賢圖序(周進隆, 1587)> 수록. 음각 목판본인데 殷湯 · 則天武后(권1)와 孔子(권2)의 3장은 양각판화임. 이에 대하여 문미진은 조선에서 음각 양각 두 종을 판각하였거나 일본에

10) 『北軒居士集』卷20 <改粧君臣圖像序>. “余爲小兒時 常在西浦先生側 玩此冊 …(中略) … 又展至孔孟 聖賢所在 輒自以兩手執而揭之 命余及諸兒拜 拜訖而視之 則其所揭 乃武后也 先生大笑曰 安有人而忍拜武后者 故嘲諷之 見其慙憤啼哭然後已 諸兒知武后之可惡 又爭就其像 抹而汗之.”

11) 문미진(2014), 113-121.

12) 嘉靖五年五月日 內賜司諫院正言黃憲歷代君臣圖像一件 命除謝恩 右承旨臣丁[花押]

13) 중종 명편 『역대군신도상』에는 모두 108인(君圖 40인, 臣圖 68인)이 수록되어 있는데, 문미진이 수록 내용을 정리한 표에는 권2의 東方朔 · 楊子雲과 白樂天부터 許魯齋까지 29인은 ‘없음’으로 되어 있어 모두 79인의 군신도상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래된 후 누락된 것을 보완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함.

- ②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孫仲暉 內賜本
2권 2책. 월성손씨 서백당(손동만) 구장본¹⁴⁾(국편, MF0001532). 권두에 1526년 5월에 工曹判書 孫仲暉에게 내린다는 內賜記¹⁵⁾와 宣賜之記라는 內賜印이 있으나 우승지의 수결은 없음. 昭明太子(권1)를 제외한 107명의 君臣像이 있음. <歷代君臣圖像序> · <題聖賢像> · <續刊聖賢圖序> 중 <續刊聖賢圖序> 앞부분 두 쪽이 없음.
- ③ 총독부분: 元亨利貞 4책. 국중 소장. 서문 등 없고 두서없이 95명의 군신도상 수록
- ④ 규장각본(奎中 2429): 1권(권1). 서문 3종 수록. 臣圖 39명 수록(閔王 누락)
- ⑤ 성기회본: 2권 2책. 108인의 군신도상 수록(君像 40인, 臣像 68인). 서문 3종 수록¹⁶⁾
- ⑥ 국학진흥원본: 1책(권2). 君臣 20명만 수록되고 나머지는 없음

문미진이 조사한 위의 6종 이외에 계명대 동산도서관에도 1책(卷上)이 소장되어 있다.¹⁷⁾ 이 책은 이행의 <歷代君臣圖像序> 3장, 張洪의 <題聖賢像> 2장에 이어 본문 伏羲부터 閔王까지 40인의 君像이 온전하게 수록되어 있고, 규장각본의 순서와 같이 소명태자가 25번째에 수록되어 있다.

歷代君臣圖像 / 周進隆(明) 撰 ; 中宗(朝鮮) 命編 - 木板本(陰刻) - 1526(中宗 20) 印 1冊(零本): 四周單邊, 半郭 29.0×22.1, 無界, 14行18字, 內向三葉花紋魚尾 ; 38.2×25.7

- 14) 국보 283호 『通鑑續編』 등 서백당의 전적이 장서각에 위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책 또한 현재 장서각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장서각 목록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 15) 嘉靖五年五月日 內賜工曹判書孫仲暉歷代君臣圖像一件 命除謝恩 右承旨臣丁[花押]
- 16) 成耆嬭, 『中國歷代君王服飾研究』(서울: 열화당, 1984). 成耆嬭(강릉 신교장 중부) 교수가 집안에 전해오던 것을 군왕 복식 연구의 차원에서 上卷인 君像 40인을 영인과 함께 1984년 출판하였음. 영인본은 서문 3종이 모두 수록되어 있고, 본문 40장이 완전함.
- 17) 이외에 삼암고서박물관 목록에도 가철된 1책(24장)의 『君臣圖像』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목록에 의하면, 임란 이전에 간행된 목판본이며, 내용 주기에 ‘杜甫·賈島·司馬光·楊龜·白樂天·高太尉·程明道·岳飛·韓愈·包龍圖·程伊川·朱晦菴·李白·劉雲莊·張橫渠·張南軒·柳宗元·周濂溪·蘇東坡·呂東萊·孟東野·邵康節·黃山谷·郭子儀 等圖像’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 가운데 柳宗元 등은 종종 명편 『역대군신도상』 미수록 인물이다.

版心題: 君臣圖像

序: 嘉靖四年(1525)閏十二月日...李荇奉教謹序

題聖賢圖: 正統三年(1438)夏六月...張洪

『역대군신도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이 책이 일본에서도 활자와 목판으로 간행되었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1651년(慶安 4) 京都에서 개판된 목판본 정도가 소개되었으나 그보다 앞서 간행된 2종의 목활자본이 더 있었다. 『國立國會圖書館所藏 古活字版圖錄』과 『弘文藏古活字版目錄』에 慶長年間(1596-1614)의 목활자본 『역대군신도상』이 있다.¹⁸⁾ 이 도록에는 각각 李白의 도상과 약전·찬문, 神農의 약전·찬문과 黃帝의 도상만이 소개되어 있어 동일판본인지 확인이 어렵다. 다행히 계명대 동산도서관에도 일본 목활자본 1종(卷下)이 소장되어 있어 계명대본과 국립국회도서관본의 李白 부분을 대조한 결과 7행의 ‘脫’字 등 모양이 다른 글자가 보이고, 판심과 흑구의 모양에 차이가 있어 이본임을 확인하였다. 홍문장본은 대조·확인할 수 없어 단언할 수 없으나 동일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일본에서 목활자로 2회 인출되었던 셈이다. 일본 간본은 조선본과 달리 모두 양각이며, 일본 목판본은 조선본이 아닌 일본 목활자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중종의 명으로 이행 등이 인물을 선정, 약전·찬문을 짓고, 조선의 화공이 도상을 그려 간행한 『역대군신도상』이 일본에 전래되어 최소 3회 이상 간행되는 등 조선본의 일본 전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歷代君臣圖像 / 周進隆(明) 撰 ; 某氏(朝鮮) 贊 - 木活字本(陽刻) - [慶長年間(1596-1614)]
2卷2冊: 四周雙邊, 半郭 25.8×19.8, 無界, 10-13行20字, 黑口, 內向花魚尾 ; 32.7×23.6
版心題: 君臣圖像上(下)

續刊聖賢圖序: 成化二十三年歲舍丁未(1487)...周進隆識

題聖賢圖: 正統三年(1438)夏六月...張洪

歷代君臣圖像序: 嘉靖四年(1525)閏十二月日...李荇奉教謹序

君像 40人, 臣像 68人 수록

18) 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 『國立國會圖書館所藏 古活字版圖錄』(東京: 汲古書院, 1990), 326-327. ; 反町茂雄, 『弘文莊古活字版目錄』(東京: 弘文莊, 1972), 182-183.

홍문장

歷代君臣圖像 / 周進隆(明) 撰; 中宗(朝鮮) 命編 - 木活字本(陽刻) - [慶長年間(1596-1614)] 印
2冊: 四周雙邊, 半郭 26.5×20.7, 無界, 10行20字, 黑口, 內向三葉花紋魚尾; 34.2×24.8
版心題: 君臣圖像上(下)

君像 40人, 臣像 68人 수록

계명대

歷代君臣圖像 / 周進隆(明) 撰; 中宗(朝鮮) 命編 - 木活字本(陽刻) - [慶長年間(1596-1614)] 印
3冊(零本): 四周雙邊, 半郭 26.0×19.8, 無界, 9-13行20字, 黑口, 內向二·三葉花紋魚尾
; 31.8×23.4

版心題: 君臣圖像下

臣像 67人 수록(1장 반엽 탈락: 진덕수 略傳·贊과 마지막 許衡 부분)

2.2 君臣圖像

『군신도상』은 『역대군신도상』이 君像과 臣像으로 구분한 것과 달리, 君臣을 구분하지 않고 194인의 인물에 대하여 약전과 찬문이 없이 도상만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盤古가 수록되어 있는 등 수록 인물의 차이도 있으며, 모두 중국인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표지서명이 ‘君臣圖像’이라는 것 이외에 이 책의 서명을 알려주는 정보가 없다. 본문은 目錄題 없이 194인의 수록 인물 목록이 2장 반엽에 걸쳐 수록되어 있으며, 목록의 끝에 전체 인원을 표기한 ‘百九十四人’이 묵서되어 있다. 이어 제3장 후면부터 관심, 변란, 장차 등이 없이 도상과 이름만이 수록된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¹⁹⁾

목록에 제시된 194인 가운데 孔子, 諸葛, 武后, 孟東野郊, 曹武惠王彬, 朱文公,

19) 이 책은 목록의 순서대로 일반 서적과 같이 접히는 부분인 관심을 기준으로 2인의 인물을 좌우에 배치하여 한 판에 판각된 것이 아니라 1인 1판으로 판각된 듯하다. 2인이 한 판에 새겨졌다면 84번째 ‘檀永興公道帝’와 85번째 ‘魏高祖’가 한 판을 이루어야 하지만 ‘魏高祖’는 86번째 ‘齊武帝’와 앞뒤 1장으로 짝을 이루고 있으며, 91번째 ‘周高祖’와 92번째 ‘隋文帝’의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127번째 ‘孟東野郊’는 빠져 있으나 반엽이 탈락된 현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음 인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볼 때, 인물별 1판으로 목판을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趙文敏公, 許文懿公의 8명이 낙장 혹은 누락되어 모두 186인의 도상이 남아 있다. 『역대군신도상』과는 96인이 중복된다. 공자의 경우 목록에 기재된 두 개의 도상 가운데 하나는 낙장이고, 하나만 수록되어 있다.²⁰⁾ 모두 반신상이며, 양각과 음각이 혼용되어 있다. 얼굴은 모두 양각인 반면에 모자 등 머리 장식은 대부분 음각이며, 의상은 음각과 양각이 혼용되었다. 시선의 방향은 첫 번째 盤古와 60번째 鄧禹가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왼쪽을 바라보고 있다.



<도상 인물 비교-군신도상(좌), 일본 역대군신도상 목판본(중)과 목활자본(우)>



<도상 인물 비교-역대군신도상(좌), 일본 역대군신도상 목판본(중), 군신도상(우)>

20) 동일 인물이 두 차례 수록된 것은 孔子가 유일하며, 떨어져 나간 공자의 圖像은 『素王事記』에 수록된 <魯司寇像>이 아닐까 추정된다.

조선에서 간행된 종합 도상집은 위의 2종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선별한 필사본 도상집도 제작되었다. 222명의 인물 도상이 수록된 채색 필사본 『군신도상』을 번역·수록한 『역사인물사전』²¹⁾이 그 사례가 되며, 여기에는 중국인 이외에 최치원·안향·정몽주·김시습 등 4인의 한국 인물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東國通鑑』·『東文選』의 사례처럼 역사, 문학 등의 분야에서 우리의 것을 별도로 편집하여 간행한 것과는 달리 한국 인물만을 수록하는 종합 도상집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도상집이 간행되지 못한 것은 종합 도상집을 인식하는 조선 사회의 일면을 유추할 수 있겠다.

『군신도상』과 『역대군신도상』 수록 인물 비교

* 표시는 낙장 미수록

순서	君臣圖像	歷代君臣圖像	순서	君臣圖像	歷代君臣圖像	순서	君臣圖像	歷代君臣圖像
1	盤古		66	蔡中郎邕		131	唐武宗	
2	伏羲	1	67	漢昭烈帝		132	李衛公德裕	
3	神農	2	68	諸葛*	59諸葛孔明	133	唐宣宗	32
4	倉頡	41	69	關羽		134	周世宗	
5	黃帝	3	70	魏太祖	18	135	宋太祖	34
6	少皞	4	71	鍾繇		136	宋太宗	
7	顓頊	5	72	司馬宣王	60司馬懿	137	趙韓王普	
8	帝嚳	6	73	吳大帝		138	曹武惠王彬*	
9	帝堯	7	74	周公瑾		139	呂蒙正	
10	帝舜	8	75	晉武帝		140	宋仁宗	35
11	皐陶	42	76	晉元帝	20東晉元帝	141	富弼	
12	后稷	43	77	王司徒		142	文彥博	
13	契	44	78	謝文靖公安	64謝安	143	李文靖公	
14	大禹	9夏禹	79	王右君羲之	67王羲之	144	張乖崖	
15	啓王		80	陶淵明	69	145	李泰伯	
16	尙湯	10殷湯	81	謝靈運	68	146	胡翼之	
17	伊尹	45	82	宋武帝	21南朝宋武帝	147	徐仲車	
18	尙高宗		83	宋文帝	22	148	韓魏公	
19	傅說	46	84	檀永興公道濟	70檀道濟	149	范魏公	
20	泰伯		85	魏高祖		150	包孝肅公	90包龍圖
21	周文王	11	86	齊武帝		151	歐陽文忠公	
22	武王	12	87	梁武帝	24	152	周元公	92周濂溪
23	伯夷		88	程忠壯公		153	程淳公	95程明道

21) 아주문화학회, 『(그림으로 읽는) 역사인물사전』 (서울: 아주문화학회, 2003).

순서	君臣圖像	歷代君臣圖像	순서	君臣圖像	歷代君臣圖像	순서	君臣圖像	歷代君臣圖像
24	成王		89	昭明太子	39	154	程正公	96程伊川
25	周公	48	90	陳武帝	25	155	邵康節	93邵雍
26	召公		91	周高祖		156	張明公	97張橫渠
27	太公	47	92	隋文帝	26	157	司馬文靖公	94司馬溫公
28	康王		93	文中子	71	158	蘇文忠公	98蘇東坡
29	管仲		94	韓新義公		159	黃山谷	99
30	老子	49	95	唐高祖	27	160	米南宮元章	
31	子產		96	唐太宗	28	161	楊文靖公	100楊龜山
32	吳季子札		97	長孫趙公		162	李忠定公綱	
33	孔子*	50	98	房梁公	72房玄齡	163	宋高宗	36
34	孔子		99	杜蔡公	73杜如晦	164	岳武穆王飛	101岳飛
35	顏子		100	李英公	74李勣	165	宋孝宗	37
36	曾子		101	李衛公	75李靖	166	朱章齋崧	
37	子游		102	魏鄭公		167	朱文公*	102朱晦菴
38	伍大夫員		103	褚河南公		168	張宣公南軒	103張南軒
39	子思		104	敬德	76蔚遲敬德	169	呂成公	104呂東萊
40	孟子		105	虞永興		170	陸文安公象山	
41	莊子周		106	武后*	29武則天	171	陳文毅公	
42	屈大夫原	51屈原	107	狄梁公	77狄仁傑	172	黃文肅公	
43	漢高祖	13	108	唐玄宗	30	173	蔡文節公	105蔡西山
44	項王羽	52項王	109	姚梁公	78姚崇	174	蔡九峯沉	106蔡九峯
45	蕭侯何		110	宋文貞		175	宋寧宗	38
46	曹靜侯參		111	元魯山		176	宋理宗	
47	張良	53	112	張曲江公		177	宋度宗	
48	韓信		113	郭子儀	81	178	劉文簡公雲莊	091劉雲莊
49	漢文帝	14	114	李光弼		179	眞西山	107
50	漢景帝	15	115	顏真卿	80	180	文丞相文山	
51	漢武帝		116	張巡		181	謝君直	
52	董江都	54董仲舒	117	賀季真		182	饒雙峯仲元	
53	東方朔	55	118	李翰林太白	82李白	183	元世祖	
54	司馬遷	56	119	杜工部	83杜甫	184	耶律文正王楚材	
55	霍博陸侯光		120	唐德宗		185	臨淮王	
56	漢宣帝		121	唐憲宗	31	186	劉文王公	
57	楊子雲	57	122	陸贄		187	許文正公	108許魯齋
58	漢光武	16	123	李西平王晟		188	劉文靖公	
59	嚴子陵	58	124	裴晉公度		189	姚文公	
60	鄧禹		125	韓文公愈	85韓文公	190	程文憲公	
61	馬伏波		126	柳柳州宗元	86柳子厚	191	廉文正公	
62	漢明帝		127	孟東野郊*	87孟東野	192	吳文正公	
63	漢章帝		128	賈浪仙島	88賈島	193	趙文敏公*	
64	郭有道		129	白少傅居易	84白樂天	194	許文懿公*	
65	徐孺子樾		130	柳河東公權				

『君臣圖像』 미수록 인물

연번	순서	명칭	연번	순서	명칭	연번	순서	명칭
1	上-17	蜀先王(劉備)	5	上-40	閔王	9	下-65	謝玄
2	上-19	吳太祖(孫權)	6	下-61	呂蒙	10	下-66	陶侃
3	上-23	齊高祖	7	下-62	杜預	11	下-79	宗璟
4	上-33	李後主(李煜)	8	下-63	王導	12	下-89	高太尉

3. 삽화 도상 수록 인물

3.1 한국인

1) 箕子

기자는 商나라 文丁의 아들이며, 紂王의 숙부이다. 주왕의 폭정을 간언하여 유폐되었다가 상나라 멸망 이후 유민을 이끌고 북으로 이주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유상은 전사자본 『箕子志(1879)』와 연활자본 『箕子遺志(1922)』에 <箕子像>이란 이름으로 반신상과 전신상이 각각 수록되어 있으며, 목활자본 『淸州韓氏家乘(1905)』에도 『箕子志(1879)』와 동일한 형태의 반신상이 수록되어 있다.



<기자지(1879)>



<淸州韓씨家乘(1905)>

2) 崔冲(984-1068) · 崔惟善(?-1075) 父子

최충은 구재학당을 설립, 유학을 근간으로 후진을 양성하고 유학 교육을 실천하여 고려에 유학이 자리잡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 권근과 같은 공적론에 입각하여 문묘에 종사되지는 못하였지만, ‘儒宗 · 文憲 · 海東孔子’와 같은 다양한 칭호를 받아 문묘 종사 조건을 갖춘 인물이며, 이황의 영향으로 문헌서원이 건립되고 기대승 · 이이 또한 그를 추송하면서 그의 사상이 心學과 理學으로 인식되면서 문묘 종사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었다.²²⁾ 해주 최씨의 시조 崔溫의 아들이며, 최유선은 그의 아들로 부자가 모두 고려 종묘에 배향되었다.

두 인물의 유상이 들어가 있는 책은 『首陽世譜』이다. 이 책은 해주최씨의 문헌록으로 先世歷官年譜, 戶口(1393년 沃溝郡夫人宋氏 · 1441년 崔仲澤), 선조의 인물별 자손도, 선조의 전기와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책의 편찬과 간행과 관련된 기록은 없어 누가 언제 편찬 · 간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최경희(1532-1593)가 마지막인 것과 이원정(1622-1680)의 장서인이 있는 대구가톨릭대본에 책판의 결락으로 인한 결장이 다수 발견되어 최경희 사후 가까운 시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冊板置簿冊[1740]』 등의 책판목록에는 礪山條에 수록되어 있으나 책판이 온전하지 못한 ‘刑’이나 없다는 ‘無’가 기재되어 있다.



<수양세보> 수록 최충(우), 최유정의 화상(좌)²³⁾

22) 이성호, “최충에 대한 역대 인식 변화와 문묘종사 논의의 이해,” 『역사와 경계』 82(2012. 3), 130-131.

이 책은 현재 희귀본으로 계명대, 장서각, 대구가톨릭대와 개인소장 정도가 확인된다. 이 가운데 장서각본과 개인소장본에만 畫像이 있고,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본은 화상이 결장되어 있다. 두 畫像은 관복을 입고 笏을 모으고 있는 흉상이며, 이면에는 각각 찬문이 있다. 그러나 화상의 제작과 관련한 기록은 없다.

3) 安珦(1243-1306)

안향은 고려말 문신·학자로 고려에 성리학을 최초로 도입·전파한 인물이다. 그는 1289년(충렬왕 15)에 손수 주자의 글과 공자·주자의 眞像을 모사하여 왔으며,²⁴⁾ 1303년에는 박사 金文鼎을 강남에 보내서 공자와 70제자의 화상, 제기와 악기, 육경과 제자, 사서, 주자서를 구해 오도록 하였다.²⁵⁾ 그의 호는 晦軒으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를 공자에 짝할 만한 인물로 보고 공자를 배우고자 한다면 주자를 먼저 배워야 함을 강조하여 1297년에 집 뒤에 정사를 지어 공자·주자의 진상을 봉안하고 조석으로 瞻謁할 정도로 경모하여 주자의 호인 晦庵을 따라 지었다.²⁶⁾ 사후인 1318년에 왕명에 의하여 도상이 그려졌고, 1319년 문묘에 종사되었으며, 소수서원에 배향되어 동국 성리학의 鼻祖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그의 遺像이 있는 서적은 『晦軒先生實紀』와 『順興安氏保宥錄』이다. 『晦軒先生實紀』는 1766년에 17대손 安克權이 처음으로 편찬·간행한(道東本) 이후 1819년 목활자본(重刊本)·1884년 목활자본(館學本)·1909년 목판본(硯山本)·1921년 목판본(道統本)으로 거듭 간행되었으며, 1905년 목판본 『文成公實紀』로 이어졌다.²⁷⁾ 이들 판본 모두 권1에 <晦軒安先生遺像>이 수록되어 있으나

23) 한국고서협회, 『한국고서 특별전』 (대구: 한국고서협회, 2010), 48.

24) 『晦軒先生實紀(1819)』卷1 年譜, 19頁. “庚寅 先生四十八歲 錄晦菴朱夫子書并畫眞像以歸 時朱子書新行於燕都 先生始得見之 潛心篤好 知其爲孔孟正脉 遂手錄其書又寫其眞像以歸 家乘考蹟.”

25) 『晦軒先生實紀(1819)』卷1 年譜, 24-25頁, 辛丑條.

26) 『晦軒先生實紀(1819)』卷1 年譜, 21頁. “丁酉 先生五十五歲 築精舍於居第後奉安孔朱二夫子眞 列傳碑誌 先生嘗曰晦菴功足以配仲尼 欲學仲尼當先學晦菴 遂精構一堂於居第後奉孔朱眞像朝夕瞻謁以寓慕景仍號晦軒.”

1921년 목판본에는 <眞像>이란 제명 아래에 도상 없이 찬시·찬문만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遺像이 수록된 4종에는 모두 명칭 이외에 遺像 관련 기록이 없고, 硯山本(1909)의 후면에 “右先生遺像也 出於文廟所安本而 崇禎後癸未依摹繡梓置于世系之上矣 今依舊摹安云”이라 하여 1763년 간행 당시에 문묘에 봉안된 것을 보고 새겼으며, 1909년에 다시 옛 것에 의거하여 새겨 넣었음을 알 수 있다.²⁸⁾

안향의 遺像은 학교를 일으킨 높은 공이 인정되어 1318년 2월에 ‘문묘에 도상을 걸고 고향에 치제하라’는 충숙왕의 명에 의하여 제작되었다. 당시 興州守였던 散郎 崔琳이 똑같이 1부를 더 제작하여 興州鄉校에 봉안하였고, 1457년 府가 폐지되자 종손 安知歸의 집에 보관되었던 것을 주세붕이 1542년 백운동서원을 세우면서 사당에 봉안되었다.²⁹⁾ 이후 이 초상화는 1559년(명종 14)에 명종의 윤허와 지원을 받아 도화서 화원 李不害(1529-?)가 참여하여 改修되었다.³⁰⁾ 현재 국보 111호로 지정된 소수서원의 <安珦 肖像>은 충숙왕의 명에 의하여 제작된 것을 모본으로 한 것이며, 『晦軒先生實紀』 수록 遺像도 1318년에 제작된 계통의 초상을 보고 그린 것을 새겼기 때문에 좌우가 바뀐 것이 다를 뿐 동일하다.

한편 『順興安氏保宥錄』의 제1장에는 <晦軒安先生遺像>에 이어 遺像의 내력과 小像을 새긴 연유를 기록한 공주목사 安弼星의 기록(1631)이 있으며, 내용은 연보의 기록을 벗어나지 않는다. 『順興安氏保宥錄』은 후손의 군역 면제를 위하여 역대 열성조의 수교를 모아 安應昌이 편성한 것으로 6종의 판본³¹⁾이 확인

27) 판본의 명칭은 1921년 晉州 道統祠에서 간행된 목판본의 연보에서 지칭한 것임.

28) 중간본에 수록된 19대손 安瑛采의 <晦軒先生實紀重刊跋(1819)>에는 “族弟參奉在默甫以是病之 博採麗朝之史傳 廣蒐諸家之記述編年成譜 一依朱子年譜之例 摸遺像而圖…”라 하여 1819년 重刊할 때에 증보된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초간본이 현재 진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언할 수 없다.

29) 『晦軒先生實紀(1819)』 卷1 年譜, 29頁. “戊午 忠肅王五年 二月 命圖形文廟致祭桑鄉…(前略)興州守崔琳摹一軀安于鄉校 本朝世祖丁丑府廢 移奉眞像于宗孫知歸家 中廟壬寅還安于書院 元人所寫眞三傳…(下略).”

30) 『晦軒先生實紀(1819)』 卷3, 19-21頁, <豊基郡守上禮判書 朴承任>, <禮曹移文> 등.

31) 윤각인서체자본, 목판본(① 상백어미, 10행 20자, 연세대, ② 내향이엽화문어미, 10행 20자,

된다. 이들 유상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모본을 저본으로 하여 『晦軒先生實紀』 수록 유상과 동일하다.



<회현선생실기(1819)>



<순흥안씨보유록(1760)>

4) 李齊賢(1287-1367)

이제현 또한 고려 후기 문신·학자로 안향에 이어 고려에 성리학을 전파한 인물이다. 안향의 문인인 백이정의 제자이며, 이곡·이색 부자의 스승으로 고려에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전하였다. 그는 1314년에 원나라에 가서 충선왕을 수행하였는데, 이때 충선왕이 연경에 지은 萬卷堂을 통하여 주자성리학을 전수받은 姚燧, 趙孟頫 등 강남 출신 성리학자와 교우하면서 성리학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였다. 특히 정몽주·길재·권근 등 그의 제자들은 조선 개국 후 김종직 등으로 이어지는 조선 성리학의 주류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이제현은 우리나라 도학 연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遺像이 판각된 서적은 문집인 『益齋亂藁』이다. 『익재난고』는 그가 살아있던 1363년(공민왕 12) 초간 이후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그러나 그의 遺像은 1600년(선조 33) 경주부윤이던 후손 李時發(1569-1626)의 간행본부더 수록되었

계명대, ③ 내향백어미·내향이엽화문어미, 9행 19자, 영남대)에는 遺像이 있으나, 목활자본과 정리자체철활자본(국중)에는 遺像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으며,³²⁾ 遺像 뒷면에는 1601년에 작성된 識文이 있다.

앞의 선조 유상은 곧 시집에 “옛날에 남겨둔 나의 초상은 양쪽 귀밑머리 푸르렀다오.”의 그 초상이다. 삼산의 종인 李胤이 이 초상화를 봉안하고 있었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파괴되어 거의 전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이에 장인을 청하여 모사하고 봉안하여 오래도록 전하게 하였다. 또 본집의 권수에 小像을 摹刻하여 이 책을 보는 후예들이 경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한다.³³⁾

이시발이 문집을 간행할 당시 宗人 李胤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 파괴되어 다시 모사하여 봉안하는 한편, 이 문집을 보는 후손들이 경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자 小像을 문집의 권수에 새겨 넣었던 것이며, 이후 간본에도 동일하게 遺像이 수록되었다. 여기에서 이시발은 그 유상을 이제현이 충선왕을 호종할 때인 1319년에 제작된 초상화로 보았다. 이제현이 降香使로 江南 寶陀窟에 가는 충선왕을 호종할 때인 1319년(33세)에 충선왕이 원나라 화가 吳壽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원나라 문인 湯炳龍(1241-1323)에게 贊을 짓도록 하였으며, 다시 북으로 돌아와 어떤 사람에게 빌려 주었다가 잃어버렸는데, 그로부터 32년 뒤에 국서를 받들어 연경에 갔을 때 그 寫眞을 다시 보고 젊었던 당시의 모습을 생각하며 詩를 지었던 것이다.³⁴⁾ 이시발은 ‘我昔留形影 青青兩鬢春’이라는 詩를 인용하며 그때 이제현이 보았던 초상화가 바로 宗人의 집에 있던 그림이라고 하면서 문집을 간행할 당시에 이 초상화를 문집에 수록하였던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遺像(국보 110호)이 전신상인데 반하여 문집에는 흉상이 수록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32)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191-193. 이 책에 의하면, 1600·1693년 간본에서는 구성에 ‘益齋像’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蓬左文庫 소장 1432년(세종 14) 원주 간본에는 遺像이 수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33) 『益齋亂藁(1600)』卷首, 3頁. “右先祖遺像 卽詩集中所謂我昔留形影 青青兩鬢春 是也 三山有宗人胤 傳奉是本 歲久破壞 幾不堪傳 迺倩工摹寫 謹奉藏焉 以垂垂之永遠 且摹刻小像于本集卷首 使後裔之覽是集者 人得以瞻仰敬慕云 時辛丑(1601)九月日.”

34) 『益齋亂藁(1600)』卷4, 6-7頁. “延祐己未 予從於忠宣王 降香江南之寶陀窟 王召古杭吳壽山 一本作陳鑑如 誤也 令寫陋容 而北村湯先生爲之贊 北歸爲人惜觀 因失其所在 其後三十二年 余奉國表如京師 復得之 驚老壯之異貌 感離合之有時 題四十字爲識.” / 국보 110호 <李齊賢肖像>에는 충선왕이 陳鑑如를 불러 그림을 그리게 한 것으로 기록.



<익재난고(1600)>

5) 鄭夢周(1337-1392)

정몽주는 ‘안향-백이정-이제현-이색’으로 이어지는 고려 성리학의 연원을 잇고, ‘길재-김숙자-김종직’으로 이어지는 조선 성리학의 비조가 되는 인물이다.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킨 충신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으며, 문묘에 배향되었다.

그의 遺像은 『圃隱集』과 『成人錄』에 수록되어 있다. 그의 문집은 1439년에 『圃隱詩稿』 초간 이후 다수 간행이 있었으나, 遺像은 1607년 臨臯書院 간본에서 수록되었다. 遺像 뒷면에는 遺像에 대한 識文이 있다.³⁵⁾ 그 글에서는 “정몽주가 52세 때인 1389년에 공양왕 즉위 공신이 되어 ‘立閣圖形’의 명이 있었고, 이에 자손이 가묘에 遺像을 봉안하였다. 후에 모사하여 臨臯·嵩陽 두 서원에 모셨고, 문집을 중간하면서 다시 새겨 연보 앞에 둔 것은 학자가 책을 펼치면 사모하고 숭모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이 임고서원 간본은 임고서원의 遺像을 참고하였으며, 이후 간본에도 설명과 함께 1677년(임고서원), 1866년(鄭元弼, 영천군수) 간본에 유상은 그대로 수록되었다. 1608년(황주병영)

35) 『圃隱先生文集』, <高麗侍中圃隱鄭先生遺像>. “按洪武二十二年己巳 恭讓王新卽位 以先生有大動勞於國家 命立閣圖形 時先生年五十有二也 子孫因藏于家廟 後摹寫奉安于 臨臯 崧陽兩書院 今又依摹綉梓 置于年譜之上 使學者開卷肅然 有以瞻仰而起慕云 萬曆丁未三月日識.”

문집에는 『성인록』과 동일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성인록[1581]>



<포은선생문집(1607)>



<포은시고(1608)>

『성인록』은 연안부사 윤두수가 남송의 충신 문천상과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유묵과 유상을 모아 1581년 간행한 것이다. 정몽주의 화상이 있으며, 화상 뒷면에는 ‘가묘 소장 54세 때의 그림이며, 원래 화상을 모사한다’는 설명이 있다.³⁶⁾ 『포은선생문집』과 『성인록』 수록 遺像의 차이는 ‘高麗侍中圃隱鄭先生遺像’과 ‘圃隱先生畫像’이라는 명칭과 그 위치, 52세와 54세 등 유상 설명,³⁷⁾ 정몽주의 왼쪽 코의 점의 유무이다. 임고서원에 초상화가 봉안되어 있다.(보물1110호)

6) 吉再(1353-1419)

길재는 이색·정몽주와 함께 삼은으로 불리는 고려 충신이다. 이색·정몽주의 문인이며, 그의 문하에서 김숙자 등 많은 학자가 배출되어 김종직을 비롯한 정여창·김굉필 등으로 학통이 이어져 초기 사림의 스승이 되는 인물이다.

그의 遺像은 수록되어 있는 『治隱先生行錄』은 1573년(선조 6)에 선산에서

36) 『成人錄』, <圃隱先生遺像>. “右像乃家廟所藏五十四歲時所寫真也 謹依原像摹寫.”

37) 홍무 22년 기사년은 53세이며, 純忠論道同德佐命功臣의功臣號를 받은 것은 1390년 8월로 54세가 된다. 따라서 이 遺像은 그가 54세 되던 해에 그려진 도상이 된다.

처음 간행되었으며, 崔應龍(1514-1580)의 편찬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1570년에 尹之亨이 선산에 부임하여 개연히 교화를 일으키고 풍속을 좋게 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는데, 백성을 다스리고 사대부를 인도하는 나머지 말이 야은의 풍채와 절개에 미치지 되면 공경하고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음이 없었으니 선생의 행실이 사림의 지남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中略)… 마침 선생의 5대손 생원 吉壽에게 정서하고 판에 새겨 오래도록 전하게 하고, 또 고을의 上舍 李瑋에게 遺像을 본떠 권수에 드리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펴면 엄숙히 높은 기상을 상상하게 하였다.³⁸⁾

1570년에 선산부사로 부임한 윤지형은 길재를 통하여 백성과 사대부를 다스리고 인도하고자 遺像을 권수에 두고 그의 행록을 책으로 편찬·간행하도록 하였다. 遺像은 권수면의 世系 뒷장에 ‘遺像’이란 글자와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全身像이다. 이때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鄉上舍 李瑋’라는 사람이 나온다. 上舍란 사마시에 합격한 사람을 일컫는데, 당시 선산에 거주하면서 사마시에 입격한 사람 가운데 이위(1542-?)라는 사람이 있다. 본관은 덕수, 거주지가 善山이며, 부친은 李元秀로 율곡 李珥의 동생이다. 길재의 遺像은 1615년에 『治隱先生言行拾遺』로 증보 간행할 때에도 수록되었다.

7) 金時習(1435-1493)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은 세조의 왕위 찬탈 후에 승려가 되어 전국을 유람하며 절개를 지킨 인물이면서 『금오신화』 등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을 남겨 절개와 문학으로 당대에 주목받고 후대에도 그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의 遺像은 『梅月堂詩四遊錄』에 <自寫眞贊>과 함께 판심에 <梅月堂像>이란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의 문집인 『매월당집』에는 遺像이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³⁹⁾ 『매월당시사유록』은 김시습의 關西·關東·湖南·金鰲 네

38) 『治隱先生言行拾遺(1615)』, <行錄初刊跋>. “歲庚午 尹侯之亨 受左符于善 慨然以興化善俗爲急 治民導士之餘 語及治隱風節 未嘗不起敬悅慕 要以先生之行 爲士林指南 … (中略) … 遂命先生五代孫生員壽 繕寫上板 傳之不朽 又令鄉上舍李瑋 摹寫遺像 表於卷首 使人人開卷 肅然想象高標.”

곳의 遊錄을 엮은 책이다. 만송본·국중본·노중석본·규장각본(천리대)·동경대본·계명대본 등 최소 6차례에 걸쳐 간행되었으며,⁴⁰⁾ 모두 遺像이 판각되어 있다. 이 遺像은 김시습이 직접 그려 鴻山 無量寺에 보관되던 것을 1597년 봄의 兵火 이전에 竹林守⁴¹⁾가 摹寫하여 奇自獻(1562-1624)에게 준 것으로, 기자현이 『매월당시사유록』을 간행하면서 卷首에 편성하였다.⁴²⁾ 김시습 초상화(보물 1497호)와 동일한 형태이나 蜜花纒의 끈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1927년 간행의 『매월당시집』에도 그의 초상이 있는데, 金壽增(1624-1701)이 모사하여 세상에 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⁴³⁾



<야은선생행록(1573)>



<매월당시사유록[1620]>



<충열록(1619)>

39) 양승민, “경진자본 『梅月堂集』 간행 과정과 校訂本,” 『韓國漢文學研究』 52(2013), 357-395.

40) 박철상, “『梅月堂詩四遊錄』 해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선본고서 해제집 1』 (대구: 계명대출판부, 2008), 20-23.

41) 李英胤(1561-1611), 益陽君 李懷의 증손, 伯兄 鶴林正 李慶胤과 함께 그림에 능하였음.

42) 『梅月堂詩四遊錄(국중본, BC古朝45-22)』, <梅月堂詩四遊錄後序>. “公之手畫像在鴻山無量寺 丁酉春兵火前 竹林守摹贈 今置卷首清寒圖書并摹于此 無亦使無傳焉 是爲後序.”

43) 『梅月堂詩集』, <畫像跋(宋時烈, 1672)>. “今延之名壽增獨摹梅月公之眞 將結茅於公所遊春川之山谷 而掛置之.”

8) 金應河(1580-1619)

金應河는 1619년 강홍립을 따라 후금 정벌에 나섰다다가 명나라가 대패한 이후에도 투항하지 않고 3,000명 병사와 후금군과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한 조선 중기 무신이다. 명나라 神宗이 遼東伯에 봉하였고, 조선에서도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그의 遺像은 그의 충절을 기리고자 1619년에 韓纘男이 발문을 붙여 간행한 『忠烈錄』에 수록되어 있다.⁴⁴⁾ 『충열록』에는 金將軍遺像에 이어 遇賊擺陣圖 · 倚柳射賊圖 · 死後握劍圖 등 그의 순절과 관련한 5폭의 그림이 있다.

9) 千萬里(1543-?)

천만리는 임진전쟁 때 이여송을 따라 참전한 후에 귀화한 무신이며, 『思庵實記(1903)』에 전신상이 수록되어 있다. 청도의 皇岡書院 영정과 같은 유형이며, 옷 등에 끈자가 여러 개 그려져 있는 등 일반적인 인물도와 거리가 있다.



<사암실기> 수록 천만리 유상



<완당탁묵> 수록 김정희 유상

44) 고려대 소장본(대학원B12-A293)은 1621년 李爾瞻과 李廷龜 서문을 붙여 훈련도감자로 간행한 것이며, 그 이전에 목판본으로 먼저 간행되었다. 계명대 소장본(목판본)의 표지 이면에는 “萬曆庚申(1620)六月日大丘都愼與賦二下賞給”이란 목서가 있다. 이는 1620년 6월 이전에 이미 목판본 『忠烈錄』이 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체제가 완비되지 못하여 <金將軍傳>에 이어 上卷 없이 <忠烈錄卷下>로 이어지고 있다. 1619년 10월에 韓纘男이 발문을 붙여 먼저 간행하였고, 이후 훈감자로 다시 찍을 때 내용을 증보하고 서문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10) 金正喜(1786-1856)

김정희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서화가로 그의 遺像은 『阮堂拓墨』에 <阮堂先生眞影>으로 수록되어 있다. 제자 許鍊이 그림을 그렸으며, 양각 목판본이다.

이외에 1910년 이후 간본 가운데 『日省錄(1932)』에는 <先生小影>이란 이름으로 최익현의 반신상이 있고, 『安院世眞錄[1927]』에는 성주 벽진의 安山書院에 봉안된 隴西 李長庚 이하 兆年, 承慶, 褒, 元具, 仁敏, 崇仁, 稷, 濟, 師厚, 穢, 光迪 등 성주 이씨 선대 12인의 眞像이 있다. 田祿生(1318-1375)의 문집인 『槿隱先生逸稿(1738)』에는 <槿隱先生遺像>이란 제명은 있으나 遺像은 비어 두고 후일 찾을 일에 대비한 경우도 있다. 이 책에는 <副尉公嘗痢圖>도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후면에 전록생이 효자로 『續三綱行實圖』에 수록된 사실이 개재되어 있다.

<한국인 인물 도상 수록 고서 목록>

서명	판본	연도	도상명	인물	형상
箕子志	전사자본	1879	箕子像	箕子	전신·반신상
箕子遺志	연활자본	1922	箕子像	箕子	전신·반신상
淸州韓氏家乘	목활자본	1905	없음	箕子	반신상
首陽世譜	목판본	17c	畫像	崔冲·崔惟善	흉상
晦軒先生實紀	목판본	1766	晦軒安先生遺像	安珦	반신상
順興安氏保宥錄	목판본	1760	晦軒安先生遺像	安珦	반신상
益齋亂藁	목판본	1600	先祖遺像	李齊賢	흉상
圃隱先生文集	목판본	1607	高麗侍中圃隱鄭先生遺像	鄭夢周	흉상
成人錄	목판본	1581	圃隱先生畫像	鄭夢周	흉상
成人錄	목판본	1903	圃隱先生畫像	鄭夢周	흉상
治隱先生行錄	목판본	1573	遺像	吉再	전신상
治隱先生言行拾遺	목판본	1615	遺像	吉再	전신상
梅月堂詩四遊錄	목판본	17c	梅月堂像	金時習	반신상
忠烈錄	목판본	1619	金將軍遺像	金應河	반신상
阮堂拓墨	목판본	19c	阮堂先生眞影	金正喜	반신상
日省錄	석판본	1932	先生小影	崔益鉉	반신상
思庵實記	목판본	1903	思庵公畫像圖	千萬里	전신상
安院世眞錄	연활자본	1927	성주이씨 12인 眞像	李長庚 등	전신상

3.2 중국인

1) 孔子(BC 551-BC 479)

공자는 유학의 시조로 그의 遺像은 『孔子家語(1402)』, 『孔聖家語(17c)』, 『孔夫子聖蹟圖(1904)』, 『闕里誌(1838)』, 『東國闕里誌(1839)』 등 다수에 수록되어 있고, 종합 도상집인 『역대군신도상』과 『군신도상』에도 수록되어 있다.

『공자가어』는 그의 언행이 기록된 문헌으로 조선에서는 王廣謀(元) 句解의 6권본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와 3권본 『標題句解孔子家語』, 吳嘉謨(明) 集校의 10권본 『孔聖家語』가 간행되었으며,⁴⁵⁾ 모두 공자의 遺像이 수록되어 있다. 왕광모 句解의 『공자가어』는 박블이 1402년(태종 2)에 강릉에서 元版本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刊記: 泰定甲子秋蒼巖書院刊行)를 번각한 6권본이 가장 빠른 문헌이다. 16세기에는 3권본 『標題句解孔子家語』가 을해자로 인출되어 이후 조선에서는 이 3권본이 간행되는데, 6권본과 3권본 모두 부록인 <新刊素王事記>의 권수에 <魯司寇像>이라는 이름으로 半身像을 수록하고 있다.

윤각필서체자본 『孔聖家語』에는 <先聖像>이라는 이름으로 전신상이 있으며, 좌우 하단에 ‘新都程起龍伯陽甫薰沐寫’와 ‘歙人黃組鐫’이라 하여 程伯陽이 그림을 그렸고, 黃組가 새겼다고 되어 있다.



<孔子家語(1402)>



<孔聖家語(숙종연간)>



<공부자성적도(1904)>

45) 강찬수, “중국본 <孔子家語>의 국내 수용과 간행 양상 - 江陵刊本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의 문헌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35(2007), 3.

『孔夫子聖蹟圖』는 공자의 행적을 그림으로 표현한 책으로, 1904년과 1924년에 두 차례 간행되었다. 두 종 모두 공자의 76세손 孔在憲이 1901년에 중국 寧海府 孔昭謙 소장 <呂聖符手定聖蹟圖> 108쪽을 구해와 간행한 것이다. 1904년본은 <先聖小像>으로 顏子和 함께 있는 전신상이며, 『孔聖家語』의 <先聖像>과 유사하다. 1924년본은 <聖行顏隨>라는 이름으로 1904년본과는 다른 안자와 공자의 전신상이 수록되어 있다.

『闕里誌』는 闕里的 사적과 공자의 집안에 관한 내용을 모아 陳鎬(明)가 편찬한 책으로 몇 차례 간행되었다. 1838년에 공자의 73세손 孔煥祖 등이 간행한 목활자본이며, <先聖行教小影>, <魯司寇像>이 있다. 이후 1905년과 1925년에도 각각 목판본과 목활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朱文公像>도 첨입되어 있다.

『東國闕里誌』는 1839년 무렵 75세손 孔明烈 등이 간행한 필서체철활자본이다. 이 책의 <범례>에 “舊誌 중 聖像圖의 摹刻에 자못 剋缺이 있어 醜麗사의 眞本으로 다시 새겨 넣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醜麗사의 그림을 저본으로 해서인지 遺像 또한 『闕里誌』와 완전히 다른 <聖像>과 <先師行像>이 수록되어 있다.

2) 諸葛亮(181-234)

제갈량은 한나라의 정통을 이은 촉한의 유비를 도와 삼국을 정립하고, 유선을 도와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과정에서 병사한 충신이다. 당시 세대에 유선을 몰아내고 스스로 황제가 되거나 막강한 위나라에 항복할 수도 있었으나 유비와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조를 지킨 인물이다. 그의 유상은 『新編蜀漢諸葛忠武侯傳』에 <忠武圖>라는 이름으로 앞서서 책을 보고 있는 전신상이 있다. 이 책은 馬偉(明)가 1453년에 편찬한 책이며, 제갈량의 전기와 八陣圖, 尹起莘 등 중국 명인의 評論·贊·銘·詩賦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에서는 金悌臣이 1492년 중국에 사신 갔을 때 永平府 士人이 책을 보여주어 구입해 돌아온 후 제갈량을 숭모하는 마음에서 1495년(燕山君 1) 경상도관찰사 재임시 간행한 것이다.⁴⁶⁾

46) 歲壬子(1492)奉使上國抵永平府有士人 袖此錄見示 侯之平生始終一目盡之 馬公其先得

3) 陶淵明(365-427)

도연명은 <歸去來辭>로 잘 알려진 중국의 시인이다. 그의 문집인 『陶靖節集』에 <靖節先生像>이란 이름의 반신상이 수록되어 있다. 군신도상류에 수록된 모습과 동일한 형식이다.

4) 呂嵩(798-?)

여암은 만당의 시인으로 신선이 되었다고 전하는 인물이다. 도교 서적인 『三聖訓經』에 關聖帝君 關羽 · 文昌帝君 張亞와 함께 孚佑帝君으로 수록된 도가의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유상은 시문집인 『衆香集』의 <總目> 다음에 <孚佑帝君像>의 전신상이 수록되어 있다.



<제갈총무후전(1495)>



<정절선생집(1581)>



<중향집(1881)>

5) 程顥(1032-1085) · 程頤(1033-1107)

정호 · 정이 형제는 二程子로 불리는 북송대의 성리학자로 周敦頤(1017-1073)의 도학을 계승한 程朱學의 창시자이다. 유상은 문집인 『二程全書』에 수록되어 있는데, 훈감자본과 목판본[18세기]에 수록된 도상에는 차이가 있다.

我心者歟 遂購置囊中東還以來手而不釋 因自嘆以爲余既同馬公之慕則同余慕者又何限焉 蓋壽梓以廣余慕之之意 幕僚孫君仲噉聞而樂之 案牘之暇粗加巧訂 其未有考者姑存元本以俟後之君子 … 蒼龍乙卯(1495)重陽節嘉善大夫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延安金悌臣跋.

우선 훈감자본에는 <明道純公像>, <伊川正公像>이라는 이름으로 부친 太中公 程珦의 遺像인 <程太中公像>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훈감자본 『二程全書』의 <程太中公像> 후면에 ‘내(陳宣)가 <程氏全書>를 중간하면서 그 집 篋中에서三公의 像을 얻어 全書의 앞에 새겨 넣으면서 유독 태중공의 贊이 빠져 있어 이를 보충하여 넣는다.’는 기록⁴⁷⁾을 통하여 1498년 河南府 監察 李瀚과 知府 陳宣이 중간할 때 遺像이 첨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간본이 조선에 전래되었고, 1566년(명종 21)의 갑진자본,⁴⁸⁾ 17세기 훈련도감자본 등에 동일하게 이들 유상이 수록되어 있다.



훈감자본 <이정전서>에 수록된 정향·정호·정이의 인물 도상

다음으로 후기 목판본에는 <명도선생>, <이천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부친 정향의 유상은 없다. 이 책은 徐必達(明)의 중간본(1606)을 저본으로 간행한 것으로, 도상이 이전 간본과 다른 모습이다. 목판본이 주희의 찬문만 있으나 훈감자본에는 주희 이외에 張栻·趙汝騰 등의 찬문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47) <程太中公像>. “太中公贊 / 宣因重刊程氏全書間 又得其家篋中三公像甚古 遂命工摹刊全書之右 而純公正公故皆有贊 獨太中公缺之 竊謂太中公贊不可缺 故敢僭補之云 … 東嘉後學陳宣謹贊.”

48) 內賜記: 嘉靖四十五年(1566)五月日 內賜承政院左副承旨朴承任二程全書一件 命除謝恩 同副承旨臣朴[花押](고려대 만송문고, 만송 貴 100C).



<군신도상> 수록 정호의 도상 목판본 <이정전서> 수록 정호·정이의 도상

6) 岳飛(1103-1141)

악비는 남송의 장군으로 금과의 전투에서 연승하며 공을 세웠으나 금과의 화친을 주장하던 재상 秦檜의 모함으로 죽임을 당하면서 충신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의 도상이 수록된 책은 『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이다. 이 책의 저본은 麥福(明)이 악비의 충절을 기리고자 舊本을 바탕으로 증보하여 1501년에 편찬 간행한 책이다. 조선에는 1584년에 역관이 북경에서 책을 구해와 선조에게 바쳤고, 이에 선조가 악비를 통하여 충효를 일깨우고 권선징악하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교서관에 명하여 간행하도록 한 것이다.⁴⁹⁾ 여기에는 이산해 서문과 류성룡 발문을 있어 간행 배경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산해의 서문에는 ‘갑신년 겨울에 『精忠錄』 1권을 운각에 내리면서 자신에게 서문을 쓰게 하였고, 열람해 보니 화상도 있고 찬문도 있다.’고 하여 명판에 화상이 원래 있었고, 이를 그대로 옮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간행된 6권 3책의 경진자본은 이듬해인 1585년 7월에 임고서원 등에 내사되었다.⁵⁰⁾ 이 책에는 악비의 반신상과 앉아서 책을

49) <精忠錄序>. “… 萬曆甲申(1584)冬 我殿下精忠錄一帙于芸閣 令印出而廣其傳 仍命臣山海序之… 拜而繙閱 則有像焉 有贊焉… 李山海奉教謹序.”

<精忠錄跋>. “… 萬曆甲申 有譯官來自燕都 以精忠錄一帙進者 上覽之嘉歎 下書局印出而題跋之命… 今是編也 其意在於課忠責孝 有勸有懲 其感於人心者深矣 況君子盡忠而賈禍 小人以譖而得志 亦豈非來世之龜鑑耶… 柳成龍 奉教謹跋.”

50) 萬曆十三年七月日/內賜慶尙道永川臨臯書院精忠錄一件/右承旨臣鄭[花押](보물1109-2호).

보고 있는 전신상을 비롯하여 악비의 戰陣 行蹟을 요약한 34개의 판화가 권수에 있다. 반신상 뒷면의 찬문 끝에는 작은자로 ‘出君臣圖像’이라 하여 君臣圖像 수록 도상에서 왔음을 적고 있다.

한편 『攷事撮要』와 『古書冊板有處攷[1700]』·『古冊板有處攷[1780]』에는 咸陽條에 精忠錄 책판이 있다. 1585년 경진자본 이전에 함양에서 이미 판각되었고, 18세기 후반까지 책판이 전했던 것이다. 성암고서박물관에 임란 이전 목판본 1책(권1)이 있어 『攷事撮要』 수록의 함양 간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록에 기재된 판식은 ‘四周雙邊 半郭 20.2×14.0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內向黑魚尾’이고, 목록에는 편자가 麥福(明)으로 되어 있으나 기재 내용이 경진자본과는 차이가 있다. 이후 이 책은 숙종과 영조가 1709년과 1769년에 각각 御製序를 붙여 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1769년의 무신자본만이 장서각 등에 전한다.⁵¹⁾



<군신도상> 수록(좌), <정충록> 수록 악비상(중·우)

51) 1709년에는 숙종이 어제 서문을 지었으나 간행되지는 못한 듯하다. 우선 1769년 간본만이 확인되고, 1734년 2월 4일에 영조가 ‘선왕 때에 등사된 것을 潛邸시에 보았다(曾在先朝謫之, 而予在潛邸時見之矣).’하여 간행을 언급하지 않았다. 1769년 간행 당시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보아도 저본을 故 宣傳官 趙益道(?-1587)에게서 어렵게 구하였고, 4월 25일 <어제정충록서>를 읽으면서 ‘지난 기축년에는 구본을 御覽하였고, 지금 기축년에는 重刊을 하니 우연이 아니다(上曰 前己丑 御覽舊本 今己丑 重刊此本 事不偶然矣)’라고 말한 점도 그러하다.

7) 朱熹(1130-1200)

주희는 朱子로 불리는 남송대 성리학자로 二程子를 이어 성리학을 집대성한 인물이다. 그의 유상은 『太師徽國文公年譜』, 『朱子實記』, 『文公先生紀譜通編』, 『太師徽國文公朱夫子集成通編』, 『闕里誌』 등의 전기류에 수록되어 있다.



<태사회국문공연보(16c)>



<주자실기(1570)>



<황조도학명신언행외록(16c)>

『太師徽國文公年譜』에는 <太師徽國文公眞像>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른쪽 像은 가묘에 있던 것으로 문공이 61세 때 寫眞이며, 삼가 책머리에 새겨 넣어 책을 보는 사람이 또한 선생의 평생 기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기록이 있다.⁵²⁾ 이 책은 주자의 연보로 葉公回(明)가 朱境 등이 1394년에 편찬·간행한 『朱子年譜』를 補編하여 1431년(宣德 6)에 간행한 것이다. ‘이전의 유상을 교체한다’는 등의 기록이 없으므로 遺像은 섭공회가 보충하여 넣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유상은 흉상이며, 조선에서 간행된 그의 연보류는 모두 葉公回의 『太師徽國文公年譜』를 저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목활자본(重刊) 『太師徽國文公年譜(1915)』·『朱子實記(1570)』·『文公先生紀譜通編』·『太師徽國文公朱夫子集成通編』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으며, 圖像 또한 동일하다. 『문공선생기보통편』은 송시열이

52) 『太師徽國文公年譜』, <太師徽國文公眞像>. “右像乃家廟所藏文公六十一世時所寫眞也… 因拜手謹依原像摹寫鈐梓于卷端 使觀者亦可想見/先生平生之氣象云/括蒼 葉公回 謹識.”

『주자연보』와 『주자실기』가 서로 중복된 것이 있음을 병통으로 여겨 이를 합치고 의심나는 것을 부기하여 1679년(숙종 5) 무렵에 6권으로 편찬한 것이며,⁵³⁾ 『태사 휘국문공주부자집성통편』은 주자의 27세손 孫炯奎가 汪仲魯의 <年譜序文> · <道統源流> · <世系源流> · <列聖朝受教>를 모아 1876년(고종 13)에 목활자로 인출한 책이다. 『궐리지』는 공자의 고향인 闕里의 역사와 공자 집안의 가승인데, 1905·1925년에 간행된 책에 <朱文公像>이라는 전신상이 수록되어 있다.

8) 文天祥(1236-1282)

문천상은 남송의 정치가이며, 남송 멸망 이후 원 세조의 회유를 거절하고 죽음을 택한 남송의 충신이다. 그의 유상은 윤두수가 1581년 편찬·간행한 『成人錄』과 홍계희가 1759년에 간행한 『文山先生詳傳』에 <文山先生畫像>과 <文山先生小影>이란 이름으로 각각 다른 반신상이 수록되어 있다.



<군신도상>



<성인록>



<문산선생상전>

이외에 인물도상이 수록된 책으로 『皇朝道學名臣言行外錄』이 있다. 여기에는 도학의 계통을 이은 송대 성리학자인 程頤 · 司馬光 · 尹焞 · 楊時 · 李侗 · 朱

53) 『宋子大全』 <附錄> 卷7, 年譜.

熹·呂祖謙·張栻의 전신상이 한 폭에 2인씩 있다. 이 책은 世敎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주희가 편찬한 ‘송명신언행록’ 가운데 한 부분이다.⁵⁴⁾ 성리학적 이념에 충실한 이상적 인물의 표본을 제시하고자 편성한 책이기 때문에 조선 전기 간본만 해도 경자자본, 갑진자본, 경자자복각본(1502), 을해자본, 추향당자본이 전하고 있고, 후기에도 1666년 민유중이 간행하고 송시열이 발문을 쓴 완영본을 시작으로 다수의 판본이 존재한다. 『황조도학명신언행외록』은 권두에 ‘道統傳授之圖’를 두고 濂溪 周敦頤로부터 九峯 蔡沆까지 송대 성리학자를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유독 이 <외집>에만 인물 도상이 수록되어 있다.⁵⁵⁾



<을해자본 『황조도학명신언행외록』 수록된 송대 명신의 인물도상>⁵⁶⁾

54) ‘송명신언행록’은 주희가 『五朝名臣言行錄』 10권, 『三朝名臣言行錄』 14권을 편찬한 것을 바탕으로 李幼武(宋)가 『皇朝名臣言行錄』 8권, 『四朝名臣言行錄』 26권, 『皇朝道學名臣言行錄』 17권으로 증보한 이후 각각 <전집>, <후집>, <속집>, <별집>, <외집>의 75권으로 합쳐져 세상에 유통된 것을 말한다.

55) 도상을 확인한 것은 을해자본(화봉문고)과 경자자복각본이다. 성암고서박물관의 갑진자본 목록에도 ‘插圖’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후기 간본의 시작인 1666년 완영본에는 도상이 없다. 완영본은 1638년(崇禎 11)에 張采(明)가 評閱하고 馬嘉植(明)과 宋學顯(明)이 參正한 『宋朱晦菴先生名臣言行錄』을 저본으로 한 것이며, 완영본 이후의 판본은 모두가 판본을 따르고 있다. 이로 볼 때, 송본에는 <外集>에 도상이 있다가 張采(明)가 評閱한 이후 도상이 생략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6) 화봉문고

(http://bookseum.hwabong.com/jsp/show26/picture.jsp?user_code=133&code=8711).

<중국인 인물 도상 수록 고서 목록>

서명	판본	연도	도상명	인물	형상
新刊素王事紀	목판	1402	魯司寇像	孔子	흉상
孔聖家語	운각필	숙종	先聖像	孔子	전신상
關里誌	목활	1838	先聖行教小影 顔子從行, 凭几像, 乘輅像, 魯司寇像	孔子	전신상
東國關里誌	필철	1839	聖像, 先師行像	孔子	전신상
孔夫子聖蹟圖	목판	1904	先聖小影	孔子	전신상
續修聖蹟圖後學錄	목판	1917	先聖行教小影, 凭几像, 乘輅像, 聖像, 魯司寇像	孔子	전신상
新編蜀漢諸葛忠武侯傳事實	목판본	1495	忠武圖	諸葛亮	전신상
陶靖節集	목판	1518	靖節先生像	陶淵明	반신상
衆香集	전사자	1881	孚佑帝君像	呂巖	전신상
二程全書	훈감자	1566	程太中公像	程頤	반신상
二程全書	훈감자	1566	伊川正公像	程頤	반신상
二程全書	훈감자	1566	明道純公像	程顥	반신상
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	경진자	1585	武穆像	岳飛	반신상
太師徽國文公年譜	목판	1566	太師徽國文公眞像	朱熹	흉상
朱子實記	목판	1571	太師徽國文公像	朱熹	흉상
文公先生紀譜通編	목판	1679	太師徽國文公眞像	朱熹	흉상
太師徽國文公朱夫子集成通編	목활	1876	太師徽國文公眞像	朱熹	흉상
關里誌	목판	1905	朱文公像	朱熹	전신상
成仁錄	목판	1581	文山先生遺像	文天祥	반신상
文山先生詳傳	운각자	1759	文山先生小影	文天祥	반신상
皇朝道學名臣言行外錄	을해자	16c	伊川先生子程子	程頤	전신상
皇朝道學名臣言行外錄	을해자	16c	涑水先生司馬公	司馬光	전신상
皇朝道學名臣言行外錄	을해자	16c	和靖尹先生	尹焞	전신상
皇朝道學名臣言行外錄	을해자	16c	龜山楊先生	楊時	전신상
皇朝道學名臣言行外錄	을해자	16c	延平先生李子	李侗	전신상
皇朝道學名臣言行外錄	을해자	16c	晦庵先生朱子	朱熹	전신상
皇朝道學名臣言行外錄	을해자	16c	南軒先生張子	呂祖謙	전신상
皇朝道學名臣言行外錄	을해자	16c	東萊先生呂子	張栻	전신상

4. 결 언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인물 도상이 수록된 서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적의 삽도로 들어가는 인물 도상은 『역대군신도상』과 같이 도상만을 수록한 종합 도상집과 달리 책의 내용보다는 비중이 낮다. 이 점으로 통상적으로 기관에서 목록을 작성할 때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는 삽도로 들어간 인물 도상을 찾기가 쉽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조사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 인물 도상이 수록된 고문헌 목록을 작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인물 도상이 수록되는 서적의 특징을 살펴본 것이며,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 도상집으로 『역대군신도상』이 대표적이다. 이는 1525년에 증종의 명을 받은 李荇 등이 周進隆(明)이 편집·간행한 『聖賢圖』를 바탕으로 伏羲부터 宋 寧宗까지의 君像 40인과 蒼頡부터 許衡까지 臣像 68인을 선정하고, 略傳과 贊文을 지어 도화서 화공이 도상을 그려 간행한 것이며, 1526년 5월에 黃憲·孫仲暉 등에게 내사되었다. 대형의 음각 목판본이며, 7종 정도가 전하고 있다. 이 책은 일본에 전래되어 17세기 초반에 목활자본으로 2회 이상, 이를 저본으로 한 목판본이 1651년에 京都에서 간행되었다. 중국에서 간행된 여러 판본을 바탕으로 조선 왕명에 의해 조선 학자와 화공·각수가 참여하여 새롭게 편찬된 책이 일본에 전래·간행되어 동양 삼국의 출판 교류의 일면을 살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또 다른 종합 도상집으로 『군신도상』이란 책이 있다. 서·발문 등 서적 관련 기록이나 약전·찬문없이 목록과 도상만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군신을 구분하지 않고, 대체로 연대 순서로 인물을 수록하고 있으며, 盤古부터 許謙까지 194인의 인물을 수록하고 있는 양각 목판본이다. 목록에는 194이 수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8명이 탈락되어 186장이 남아 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소개되는 유일본이다.

셋째, 조선에서 간행된 종합 도상집은 위의 2종이 유일하며, 증종 명편의 『역대

《군신도상》을 바탕으로 선별·증보의 방식으로 모사한 필사본도 유통되었다. 이러한 경우 한국인이 수록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중국인 중심이며,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물 도상집은 없다. 이러한 점은 역사, 문학 등 다른 분야에서 『동국통감』·『동문선』 등 우리 역사와 문학 등을 찾았던 양상과는 차이나는 점이며, 인물 도상을 인식하는 조선 식자층의 의식 일면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서적의 삽도로 들어가는 인물의 도상은 문집이나 실기에 수록되어 있다. 문집의 초간본부터 수록되었다기보다 성리학이 정립되기 시작하는 16세기 중반 이후부터 문집이 중간되는 과정에서 수록한 경우가 많았다. 길재의 유상이 수록되는 1571년 『야은선생행록』이 문집에 삽도가 추가되는 가장 빠른 간본이었다.

다섯째, 인물 도상이 수록되는 것은 도상을 보면서 선과 불선을 알고 그 행적을 본받고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역대군신도상』을 편찬한 이행의 서문에 밝혀져 있으며, 문집과 실기 등에 삽도를 수록한 것도 鑑戒를 위한 것으로 동일하다. 『익재난고』에서는 ‘이 문집을 보는 후손들이 敬慕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함’이었고, 『포은선생문집』의 경우 ‘학자가 책을 펼치면 숭모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야은선생행록』에서는 ‘백성을 다스리고 사대부를 인도하기 위한 세교의 목적’으로 그의 행록을 편찬하면서 권수에 遺像을 첨입하였던 것이다. 문집과 실기에 도상이 수록되는 것은 지역과 학맥, 가문의식의 반영이라는 측면도 강하다.

이 연구는 인물 도상이 수록된 문헌과 그 인물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시작하여 ‘인물 도상 수록 문헌 조사’를 1차적인 목표로 하였으나 조사에서 누락된 자료도 있을 것이다. 圖像이 제작되고 공론과 명분을 얻어 公刊으로 범위를 넓혀 책판에 새겨지는 과정이나 출판·유통 이후의 영향 관계, 동일 인물 도상의 상호 비교 등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언급되었다. 향후 이러한 부분까지 보완이 필요하며, 그러한 연구는 服飾이나 미술 분야의 연구에도 연구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 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 『國立國會圖書館所藏 古活字版圖錄』. 東京: 汲古書院, 1990.
- 동산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선본고서 해제집 1』. 대구: 계명대출판부, 2008.
-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 反町茂雄. 『弘文莊古活字版目錄』. 東京: 弘文莊, 1972.
- 成耆禧. 『中國歷代君王服飾研究』. 서울: 열화당, 1984.
- 아주문물학회. 『(그림으로 읽는) 역사인물사전』. 서울: 아주문물학회, 2003.
- 한국고서협회. 『한국고서 특별전』. 대구: 한국고서협회, 2010.

2. 논문

- 강찬수. “중국본 <孔子家語>의 국내 수용과 간행 양상 - 江陵刊本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의 문헌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35(2007). 1-22.
- 문미진. “古今人物圖像의 발전 과정과 懶牛의 『歷代君臣圖像』 연구.” 『中國人文科學』 54(2013). 369-391.
- 문미진. “朝鮮에서 간행된 中國의 君臣圖像 - 朝鮮 中宗 命編 『歷代君臣圖像』-” 『中學研究』 60(2014). 103-127.
- 양승민. “경진자본 『梅月堂集』 간행 과정과 校訂本.” 『韓國漢文學研究』 52(2013). 357-395.
- 이성호. “최충에 대한 역대 인식 변화와 문묘종사 논의의 이해.” 『역사와경계』 82(2012. 3). 95-135.
- 임완혁. “明·清 交替期 朝鮮의 對應과 『忠烈錄』의 의미.” 『漢文學報』 12(2005). 179-217.

